



세계질 양산지의 환상적인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 광주 - 동함평IC 구간 왕복 통행료 환불 (당일 동함평IC 영수증 프론트 제시)
- 우천시 9홀 이후 출발요금정산제 실시
- 예약 : www.hpdynasty.co.kr 080) 320-7700



22일 베이징 우커송 스포츠센터 야구장에서 열린 올림픽 야구 준결승에서 일본에 6-2로 통쾌한 역전승을 거둔 한국 선수들이 서로 얼싸 안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엽 '한방' ... 日 열도 침몰 시켰다

8회말 통쾌한 역전 투런포 ... 속적 日 6-2 꺾고 銀메달 확보



야구

한국 야구가 속적 일본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결승에 진출했다. 한국은 22일 베이징 우커송야구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야구 일본과 준결승전에서 선발 김광현의 눈부신 호투속에 이승엽이 통렬한 역전 2점포를 쏘아올려 6-2로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연출했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 준결승전에서 미국에 2-3으로 패한 끝에 동메달에 그친 한국은 속적 일본을 본선 풀

리기에 이어 두 번이나 격파하며 올림픽 첫 결승 진출 감격을 누렸다. 결승전은 23일 오후 7시부터 열린다. 승부는 2-2로 팽팽하게 맞선 8회 말에 갈렸다.

한국은 8회 말 선두타자 이용규가 일본의 다섯번째 투수 이와세 히토키로부터 좌전 안타를 뽑아내며 무사 1루 찬스를 잡았다. 김현수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난 뒤 1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선 건 4번 타자 이승엽.

앞선 3타석에서 병살타 한번, 삼진 두 번으로 부진

했던 이승엽은 볼 카운트 2-1에서 5구째 직구를 잡아당겨 오른쪽 담을 훌쩍 넘기며 경기를 순식간에 4-2로 뒤집었다.

한번 불이 붙은 한국의 방망이는 식을 줄을 몰랐다. 김동주가 이와세로부터 중전 안타를 뽑아내며 만들어진 2사 1루 찬스에서 고영민이 일본의 여섯 번째 투수 와쿠이 히데아키의 공을 통타, 좌월 적시 2루타로 김동주를 불러들였고, 강민호도 좌중간을 가르는 2루타로 승부에 쐬기를 박았다.

경기 초반에는 일본의 초정밀 '스몰볼'에 한국이 끌려갔다. 일본은 1회초 선두타자 니시오카 츠요시의 내야 깊숙한 안타를 친 뒤 고영민이 던진 볼이 빠져 순식간에 무사 2루가 됐다.

호시노 일본 감독은 아라키 마사히로의 보내기 번트, 아라이 다카히로의 내야 땅볼로 선취점을 뽑았고 3회 초에도 아오키 노리치카의 좌전 적시타로 2-0으로 앞섰다.

한국이 반격을 시작한 건 건 건 4회 말. 자칫 분위기가 일제히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기에서 선두타자 이용규가 일본 선발 스기우치 도시아로부터 한국 첫 안타를 뽑아내 데 이어 김현수도 좌전 안타를 치며 무사 1, 3루 기회를 만들었고, 이승엽이 2루수 앞

병살타를 치는 사이 이용규가 홈을 밟아 귀중한 득점을 올렸다.

한국은 7회 말에도 1사 1, 2루 찬스에서 대타 이진영이 일본의 네번째 투수 후지카와 규지의 6구째를 잡아당겨 1점을 추가, 2-2 동점을 만든 뒤 대역전극을 준비했다.

일본은 스기우치가 김동주에게 안타를 허용하자 곧바로 가와카미 겐신을 투입한 데 이어 6회 나루세 요시히사, 7회 후지카와 규지를 투입하며 총력전을 벌였지만 한국은 1, 3회 1점씩을 내준 선발 김광현이 안정을 찾자 8회까지 마운드를 맡겼고, 9회 초 윤석민을 투입해 뒷문을 틀어막았다.

연합뉴스



8회말 1사 1루. 이승엽의 2타점 역전포에 1루 주자 이용규가 베이스를 돌며 환호하고 있다.



9회초, 마무리투수 윤석민(왼쪽)이 아베를 뜯고공으로 잡으며 경기를 마친 뒤 포수 강민호와 환호하고 있다.

이승엽 '홈런 드라마' 또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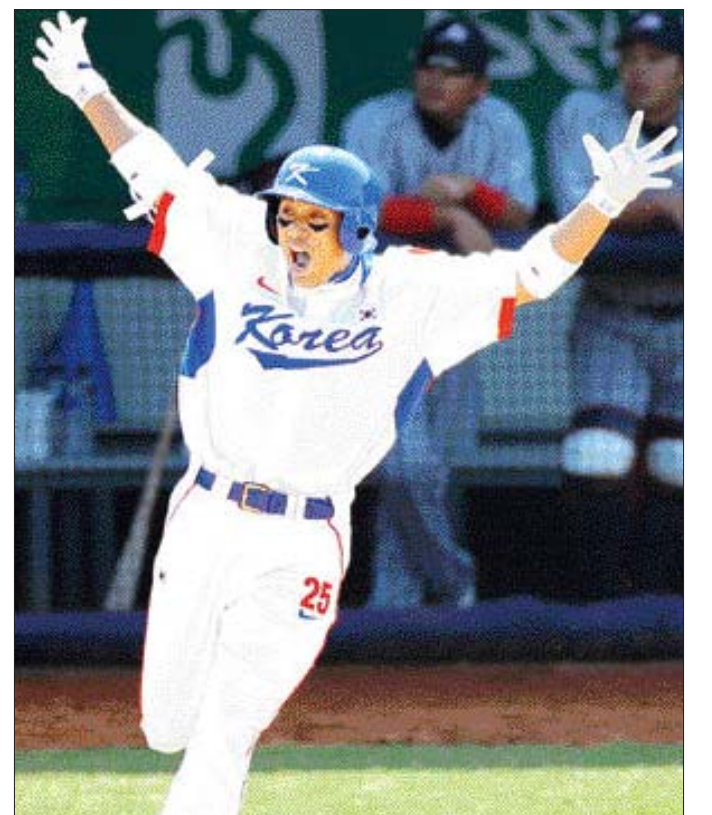
WBC 일본전 역전포 이어 올림픽서도 감동 연출

이승엽(32·요미우리)이 쓰는 홈런 드라마가 베이징올림픽에서도 재현됐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일본전에서 나온 역전 결승 투런포 등 경기 후반인 8, 9회에 나오는 이승엽의 홈런은 언제나 극적이고 보는 이들의 전율을 일으키는 감동 만점짜리 홈런이었다.

이승엽은 22일 2-2로 맞선 8회말 1사 1루에서 일본 좌투수 이와세 히토키의 몸쪽 낮은 직구를 그대로 퍼올려 곧장 우측 펜스를 넘겼다. 맞는 순간 큼직한 포물선을 그리기 시작한 타구는 일본 우익수 이나바 아쓰노리의 머리 위를 한참 지나가 일장기가 펼쳐진 객석 아래로 떨어졌다.

이승엽은 전 타석까지 이번 올림픽에서 25타수 3안타로 빈타에 허덕였다. 타격할 때 지난해 수술한 왼손 엄지가 아직도 아픈 듯 그는 보호헬멧을 차고 게임에 임했다.

8회 1사 1루 찬스를 맞아 이승엽은 볼카운트 2-1로 몰린 상황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몸쪽 낮은 직구가 들어오자 번개처럼 바람을 갈랐다. 모처럼 보는 이승엽의 짜릿한 대포였다.



윤석민도... 이용규도... 대표팀 '감격의 눈물'

'일본 넘었다' 각본 없는 드라마의 환희 軍 미필선수 14명 병역혜택 '기쁨 두배'

일본대표팀 마지막 타자 아베 신노스케의 직선타성 타구를 잡은 우익수 이용규(23·KIA)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한동안 숨죽여 눈물을 흘렸다.

이용규는 일본전까지 8경기에서 24타수 11안타 0.458의 타율로 종합무진 했다. 22일 0-2로 뒤지던 일본과의 준결승전 4회 공격때는 한국의 첫 안타를 기록한 데 이어 이승엽의 병살타 때 홈을 밟아 귀중한 1점을 만드는 등 4타수 2안타 2득점으로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대표팀 마지막 투수로 팀의 승리를 지킨 윤석민(22·KIA)도 예외는 아니었다. 윤석민은 경기 후 어깨에 얼음찜질을 하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해 수건으로 연방 얼굴을 닦았다.

2008프로야구 다승 1위 윤석민은 뛰어난 기량에도 불구하고 대표팀에서 배제됐다. 올림픽 직전에야 임태훈(20·두산) 대신 승선하면서 마음 고생을 했다. 가장 늦게 태극 마크를 단 윤석민이지만 대표팀 투수 중 가장 많은 5경기에 등판해 2.35의 평균자책점으로 2승1세이브를 기록하며 마운드를 굳건히 지켰다.

20일 네덜란드와 본선 풀리그에서 만도날 재규력으로 호투한 장원삼(25·히어로즈)은 아예 수건을 얼굴에 덮고 흐느꼈다. 장원삼은 지난해 말 대표팀 연습 파트너인 상비군으로 뽑혔다가

성실성과 재규력을 인정받아 김경문호에 승선했다. 베이징까지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기에 감동은 상상 이상이었다.

22일 우커송야구장에서 끝난 베이징올림픽 야구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6-2로 완승한 뒤 대표팀 더그아웃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 넘쳤다.

'일본을 드디어 넘었다'는 환희가 가장 컸다. 게다가 군 미필 선수 14명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메달 이상 성적을 올렸기에 기쁨은 두 배가 됐다.

1-2로 뒤진 7회 2사 1, 2루에서 대타로 나와 우익수 앞으로 굴러가는 천금같은 동점 적시타를 때린 이진영(28·SK)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각본없는 드라마가 안겨주는 순결한 카타르시스였다. 풀전 끝에 일본 사회인팀, 대만에 패하면서 동메달에 머물렀던 2006 도하 아시안게임 멤버들은 울면서도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용규·이대호(26·롯데)·이택근(28·히어로즈) 등이 당시 멤버다.

일본을 침몰시키는 결승 투런포를 때린 이승엽(32·요미우리)은 "우리 팀이 결승에 올라가는구나 하는 단순한 생각 뿐이었는데 후배들의 눈물을 보니 나 또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광현(20·SK)과 류현진(21·한화) 등 젊은 대표팀 '원투 펀치'는 올기보다는 싱글벙글 기쁨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8이닝 동안 2점만 주는 뛰어난 투수로 대표팀을 결승으로 이끈 일등공신 김광현은 "일본킬러라는 새로운 별명이 붙을 것 같다. 앞으로 일본전에 나서면 부담이 좀 되겠다"며 여유를 보였다.

김광현 '내가 바로 일본 킬러'

코나미컵·예선 풀리그 이어 준결승서도 환상투

'내가 바로 일본 킬러!'

야구대표팀의 영건 김광현(20·SK)이 22일 베이징올림픽 준결승에서 22일 일본 타선을 완벽히 틀어막는 눈부신 투구로 한국의 사상 첫 올림픽 결승 진출을 이끌었다. 선발 등판한 김광현은 8이닝 동안 삼진 5개를 곁들이며 5안타 2실점(1자책)으로 틀어막았다.

지난해 코나미컵 아시아시리즈에서 패기넘치는 투구로 일본 타자들을 요리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던 김광현은 이번 대회 풀리그 일본전에서도 5와 3분의 1이닝을 던져 삼진 7개와 3피안타 1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일본 킬러'로서의 명성을 재확인했다.

대표팀 막내가 감당하기에는 큰 경기였지만 겁없이 당당한 모습으로 일본 프로야구의 내로라하는 에이스들과 혼자 맞선 일기당천의 기개가 돋보였다. 공 하나 하나에 혼신을 다하는 듯 공을 던질 때마다 '악' 하는 소리를 지르며 20세 투수다운 기개로 일본 타자들을 압도했고, 140km대 중후반을 날라르는 빠른 직구와 슬라이더, 체인 지업 조합으로 일본 타자들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았다.

